

## 지자체 '철밥통' 없앤다

### 고흥·곡성군 등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

자신의 업무를 아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 일보다는 상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잦은 술자리 때문에 지각을 일삼거나 야에 자취를 감추는 불성실 공무원. 이런 유형의 공직자들은 더 이상 철밥통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무능·불성실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류가 감돌고 있다.

고흥군은 14일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단계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업무 부적격자를 6 종류로 나뉘, 일용직과 같은 업무보조반 근무 → 지위해제 → 직권면직 등 3단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적격자 기준은 ▲업무 능력 부족으로 다른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직원 ▲업무에 게으르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경우 ▲성격 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을 자주 하는 케이스 ▲업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 ▲갑사기관의 공직감찰에 적발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직원 등 6가지 유형이다.

부적격자로 분류된 공무원은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는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치우기 등 일용직 업무에 배치된 뒤 근무자제 개선노력을 평가한다. 만일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

#### 고흥군의 퇴출 6계명

- 동료 기피 '인공위성'
- 불평·불만 '투덜이'
- 나 홀로 '고집통'
- 업무보단 '음주가부'
- 틈만 나면 '자리뜨기'
- 감찰 적발 '비리인사'

는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 등 퇴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경경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걸러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3월부터 대상자를 선발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군도 앞으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을 걸러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군은 최근 인사에

지 않고 일용직이 맡는 하드햇일을 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단 '대상'에 오른 직원은 1년 정도 단순업무를 시키면서 개선여지를 평가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퇴직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기준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인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신분보장과 정년을 금과옥조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무원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잘못하면 일용직으로 전환되는 '수모'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업무를 철저히 챙기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책을 펼쳐는 등 전향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철밥통 공무원들에게 가장 먼저 경종을 울리고 나선 곳은 울산시와 울산시 남구였다.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정기인사부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게으름을 일삼는 직원을 골라 보직을 박탈하고 '시정지문단'에 소속시켜 하드햇을 시키고 있다. 이들은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일반직 업무에 복귀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다양한 인사 불이익을 취해 웃을 벼개 만든다는 복안이다.

울산시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을 때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광주시 남구, 구례군 등이 울산시에 운용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고흥·곡성군과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광주-문화 전남-해양 '특화'

### 2011년까지 民資 등 1조2,803억·4조7,340억 투입

#### 문광부, 개발계획 확정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예술관광 중심도시'로, 전남을 '21세기 동북아 다도해 해양문화생태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제4차 시·도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문화관광부는 14일 향후 5년(2007~2011년)동안 적용될 전국 15개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

정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전남 서남해 섬 개발이 정부의 장기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다도해 관광개발사업은 국고 지원과 각종 규제 해제에 따른 정부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은 우선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문화예술관광 도시 육성을 목표로 1조2천803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여등산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충실히 수행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특급호텔 유치 등 국제 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해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 21세기 동북아 다도해 해양생태 관광 중심지로 육성되는 전남은 ▲바다·섬·해안이 함께하는 해양관광지 ▲전통 역사문화와 음식이 있는 문화관광지 ▲남도의 자연을 체험하는 관광지 조성 등 3대 목표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신안군 증도면에 442억원을 들여 1천77km를 개발하는 증도 갯벌 휴양타운과 신안군 자은면 일원 31.3km에 8천564억원을 투입하는 다이아몬드제도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자원 등 관광지의 입지여건, 개발 가능성, 시·군의 개발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관광 육성지구, 영암 바둑테마파크, 완도 세계귀새공원,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등 4곳을 신규로 계획에 포함시켰다.

전남도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이달 중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4조 7천340억원(국비 5천961억원, 지방비 5천374억원, 민자 3조 6천5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설 선물 보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이 바빠졌다. 14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우편집중국 직원들이 분주한 손길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 선물용 소포를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설 소포 우편물 하루 접수분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 105만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체신청은 올 설 소포 우편물이 지난해 45만5천개에 비해 약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독판사를 끝으로 정은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합평 출생, 광주송일고(36회)
- 전남대 법대(87학번)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
-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변호사 김현도 올림

- 업무개시: 2007. 2. 14.(수)
- 장 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남동 11번지 금호빌딩 402호
- 대표전화: (062)234-8700
- 개업소일: 2007. 3. 9.(금) 오후 5시부터

## 이르면 이달 南北장관급회담

### 오늘 개성서 실무접촉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7개월만에 재개되고, 북·미간에도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5·6면>

남북 양측은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15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제20차 장관급회담 개최문

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장관급회담을 재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대변인은 실무접촉 의제에 대해 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본격적인 협의는 장관급회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

리자 리스 미국 국무장관은 6자회담 결과물인 '2·13 합의' 이행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1개월 내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에도 30일 이내 개최기로 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과정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상대국 교차방문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수호 김동원